

2017년 9월 11호

# 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한 노트




윤태영,  
<윤태영의 글쓰기 노트>(2014) 中



차 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

# [ 14 ] 글에서는 백화점보다 전문매장이 경쟁력이다.

“A friend to everybody is a friend to nobody.”

백화점식 글은 마지막에 뚜렷하게  
기억나는 대목이 하나도 없다.  
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면, 오히려 산만해지고  
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다.  
좋은 글이 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

# [ 15 ] 글의 시작, 어떻게 할 것인가? 강렬하거나 친숙하거나

“당신은 안녕하십니까?”(반문 또는 의문형)

“나이 오십이 되니 몸이 구석구석 쭈신다”(공감형)

“그는 비참하게 죽었다.”(자극형)

“저기 좀 보세요. 저기요!”(대화형)

“나는 이 나라가 싫다. 이유를 설명하겠다.”(결론형)

**전체 글을 통해 표현하려던**

**핵심 메시지를 서두에 쓰자.**

**시작은 독자가 계속 읽게**

**만드는 데 기여하는 요소이다** 

# [ 16 ]

정석으로 갈 것인가?  
파격을 선택할 것인가?

국무위원 여러분!

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.

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.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, 입는 것, 이런 걱정 좀 안 하고, 더럽고, **아니꼬운 꼬라지** 좀 안 보고, 그래서 하루 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
**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느껴지면**

**과감하게 파격을 시도해 보자.**

**정석만으로는 글쓰기 능력에 발전이 있기가 어렵다**



# [ 17 ] 비유는 상상력이다 맘껏 활용해 보자

선반의 삐져나온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. 많이 아팠다.  
몇 년 전 갑자기 뇌출혈이 찾아왔을 때 느꼈던 통증과 같았다.

선반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.  
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아픔이었다.  
선반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.  
수십 개의 바늘이 콕콕 찌러대었다.


**비유는 말과 글을 풍성하게 해주는 장치이다.  
직유든 은유든, 비유가 있을 때  
글은 감칠맛을 더하고 읽는 재미가 생긴다.**



# [ 18 ] 핵심 메시지,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라

봄이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다.  
봄바람은 얼어붙었던 내 몸을  
녹이고  
신록은 움츠렸던 내 마음을  
풍성하게 한다.  
봄은 사랑이다.  
나는 그 봄을 맞으러 나간다.  
나를 기다리는 그 누군가를  
만나러 간다.

봄은 사랑이다.  
봄이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다.  
봄바람은 얼어붙었던 내 몸을 녹  
이고  
신록은 움츠렸던 내 마음을  
풍성하게 한다.  
나는 봄을 맞으러 나간다.  
나를 기다리는 그 누군가를  
만나러 간다.  
봄은 사랑이다.

**길든 짧든 이야기를 짧은 한마디로 압축하자.  
그 한마디 문장을 수시로 반복하자.  
일종의 수미상관법이다** 

# [ 19 ]

제목,  
본문을 쓰고 나면 저절로 눈에 들어온다

연설문이나 기자회견문 같은 경우는  
본문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제목으로 적당하  
다.

반면 기고나 칼럼 등 일반적인 글의 경우는  
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.

제법 긴 편에 속하는 글들의 경우  
중간제목들을 적극적으로 다는 것도 생각해 보자.

제목은 글 전체를 포괄하는  
핵심적인 한마디이다\_\_\_\_\_



# [ 20 ] 대구를 활용하자 그러면 절반은 온 것이다

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.

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 
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.

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되어

**대구**는 **극명한 대비**를 통해  
**메시지**를 **효율적**으로 전달한다.  
**시**를 **쓰는** **생각**으로 도전해 보자 